

# 2024 설 가정예배

예배초청 \_\_\_\_\_ 인도자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 송 \_\_\_\_\_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_\_\_\_\_ 다 같이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시라  
 3. 지 금도 살아 계셔서 언 제나 하시 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 도다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 제나 오실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신다

후렴  
 주 앞 에 내 가 옆 드 러 그 이 름 찬 송 함 은  
 내 귀 에 들 린 말 씀 중 귀 하 신 이 름 예 수 아 멘

기 도 \_\_\_\_\_ 말 은 이

성경봉독 \_\_\_\_\_ 창세기 1:1 \_\_\_\_\_ 인도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 교 \_\_\_\_\_ 창조의 능력 \_\_\_\_\_ 인도자

찬 송 \_\_\_\_\_ 좋으신 하나님 \_\_\_\_\_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기도 \_\_\_\_\_ 다 같이

# 창조의 능력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창조’를 뜻하는 동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바라(בָּרָא)’라는 동사는 흔히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고유한 언어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호수가 17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 ‘개척하라’에 사용된 동사가 ‘바라’입니다. 산림을 개척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요셉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몫을 요셉 지파가 하나 더 취하는 내용입니다.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산림을 개척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개척하라’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라’라는 동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만 배워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여호수아 말씀처럼 ‘바라’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내는 질적 전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산림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내는 것이 ‘바라’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받는 장소이지만 30년 전에는 쓰레기로 가득했던 난지도였습니다. 일명 쓰레기산이 지금은 멋지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에게 함부로 행동하던 망나니 같은 사람이 새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라’입니다.

‘바라’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학교 폭력과 직장내 따돌림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거리에는 온통 화난 표정의 사람들 뿐입니다. 이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린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바라’ 시킬 수 있을까요?

‘바라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죄에 종 노릇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실천한다면 이기와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과 직장, 교회와 학교가 생기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라’될 것입니다. ‘바라’의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